

# 한국에 온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이 대한민국 인천에 옵니다.



## 지구가 아파요.

-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 온실가스 증가 CO<sub>2</sub>, CH<sub>4</sub>...
  - 온도 상승 2100년, 최대 6.4℃
  - 물 부족 기온 2℃ 상승 시, 전 인구의 1/2
  - 북극 빙하 감소 1980년대의 1/2
  - 해수면 상승 2100년, 최대 59cm

## 우리가 함께 해요.

-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
-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
-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 장바구니 애용
- 친환경 상품 구매

## 이렇게 해왔어요.



## 녹색기후기금(GCF)은 무엇인가요?

- 구성**
- 기금규모 1,000억달러
  - 회원국 194개국
  - 유치 신청국 한국,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독일, 나미비아
- 역할**
- "기후변화시대의 세계은행"
- 선진국에서 기금 모금, 개발도상국에 자금지원
  - 기후변화 방지사업 추진

## GCF 유치, 왜 좋나요?

- 기후변화시대의 중심국가 "대한민국"
- 경제적 효과  
고용 등 3,800 억원 경제효과

자료출처 : <키워드로 알아보는 녹색성장>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한국을 유치국으로 선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0.2 <한국,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국무총리실 블로그 10.21, <찾아가는 절전형강-중고등용> 지식경제부, 에너지 관리공단

# 함께하는 FTA



## 송년 특집: FTA 허브 구축한 글로벌 코리아 FTA, 한국에 도전과 응전을 선사하다

급변하는 동북아 통상 환경 진단





2012 “FTA와 함께한 올 한 해,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가 그리는 FTA 시대

“법률전문가로서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법무법인 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구 변호사입니다. 마흔 중반이지만 변호사가 된 것은 2012년이니 변호사로서는 새내기(?)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 변호사가 되기 전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 봤습니다. 대학에서의 전공이 경제학이었던 덕에 은행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적도 있고, 케이블 뉴스 채널과 지역 방송에서 방송기자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좀 더 큰물에서 공부를 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국 유학을 결심, MBA 과정을 밟았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자산운용 전문가로 활동하던 중 제가 가진 여러 가지 경험을 총망라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법률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금융법 및 FTA(국제거래)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개업 후 올해 3월에 발효된 한·미 FTA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6월에 FTA 법률전문가 교육과정을 수료했고, 7월에는 국제 원산지관리사 교육과정을, 8월에는 7주 동안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 FTA산업협회교육원이 진행한 FTA활용 전문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특히 전문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다양한 무역 경험을 기반으로 한 무역 단계별 FTA 이론과 기법, 활용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FTA 환경 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협상, 계약서 작성, 각종 증빙관리 등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시장 진입 조건(법, 표준, 인증)의 확인부터 계약서 작성,

상품 및 서비스 수수료,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위험을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지 못하면 자칫 한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는 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났을 때, 법조인으로서 사명감마저 들게 되더군요.

제 명함에는 이름 뒤에 'FTA 스페셜리스트'라고 적혀있었습니다만, 사실 FTA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분류한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스페셜리스트라고 감히 적어 놓은 것은 법률전문가로서 저의 각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각국과의 협정서 원문을 꼼꼼하게 읽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변호사, FTA 스페셜리스트로서 마땅히 해야할 기본이 아닐까요? [1]

글 정현주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이동구 변호사  
• FTA 컨설턴트 양성과정 1기 수료 • 법무법인 참 변호사 • MBA / FTA 스페셜리스트

# CONTENTS

www.ftahub.go.kr  
2012 December vol.7



인트로 칼럼

- 04 한국, FTA 허브 국가로 도약  
EU, 미국, 아세안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맺은 아시아 유일의 국가

커버 스토리

## 송년특집 FTA 허브 구축한 글로벌 코리아

- 06 한국의 자유무역 도전과 극복의 역사  
자유무역, 한국에 '도전과 응전'을 선사하다
- 08 신흥국들과의 FTA 추진으로 신시장 개척에 나서  
세계 경제의 신성장동력, FTA로 공략할 때
- 10 FTA 힘으로 국가위상 드높여  
세계 속의 한국, 말춤 추며 세계로 세계로
- 14 FTA와 내수 활성화  
경쟁 촉진·시장 규모 확대·규제 완화로 장기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도움
- 16 인터뷰·송중호 중소기업청장  
FTA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선택' 아닌 '필수'

뷰 파인더

- 18 FTA활용 비즈니스 모델 QR코드로 복잡한 유통단계 '한 큐'에 잡았다
- 19 카툰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한민국!
- 20 전북FTA활용지원센터 탐방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가려운 곳 긁어드려요
- 22 중소기업 천하 유기성 폐기물 건조기계·플랜트 설계기업 (주)가이아
- 24 한·미 FTA 한·미 FTA 발효 6개월의 성과 심층 분석
- 25 FTA 인포 한 눈에 보는 한국의 FTA 현황

스페셜 리포트

- 26 FTA 날개 달고 수출 드라이브  
중소기업·농수산 제품 수출 효과 노릇 특독
- 28 급변하는 동북아 통상 환경 진단 및 향후 과제  
동아시아 거대경제권 탄생 임박...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에듀 플러스

- 30 FTA 스쿨 애매한 원산지 판정, 특례 규정을 파악하라

이슈와 토픽

- 32 FTA 뉴스

올 댓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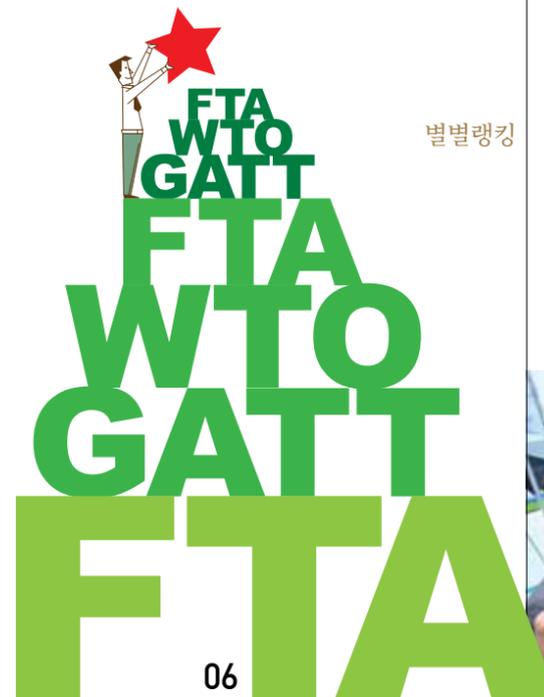
- 34 FOOD®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한식의 매력
- 36 TREND® 한류 트렌드, 드라마와 가요를 넘어 오락프로그램까지 진화
- 38 ALCOHOL® FTA로 저렴해진 미국·유럽산 와인 즐기

별별랭킹

- 40 2012년 FTA 5대 핫 뉴스 대한민국의 FTA에 가속도가 붙은 한 해



표지 일러스트 허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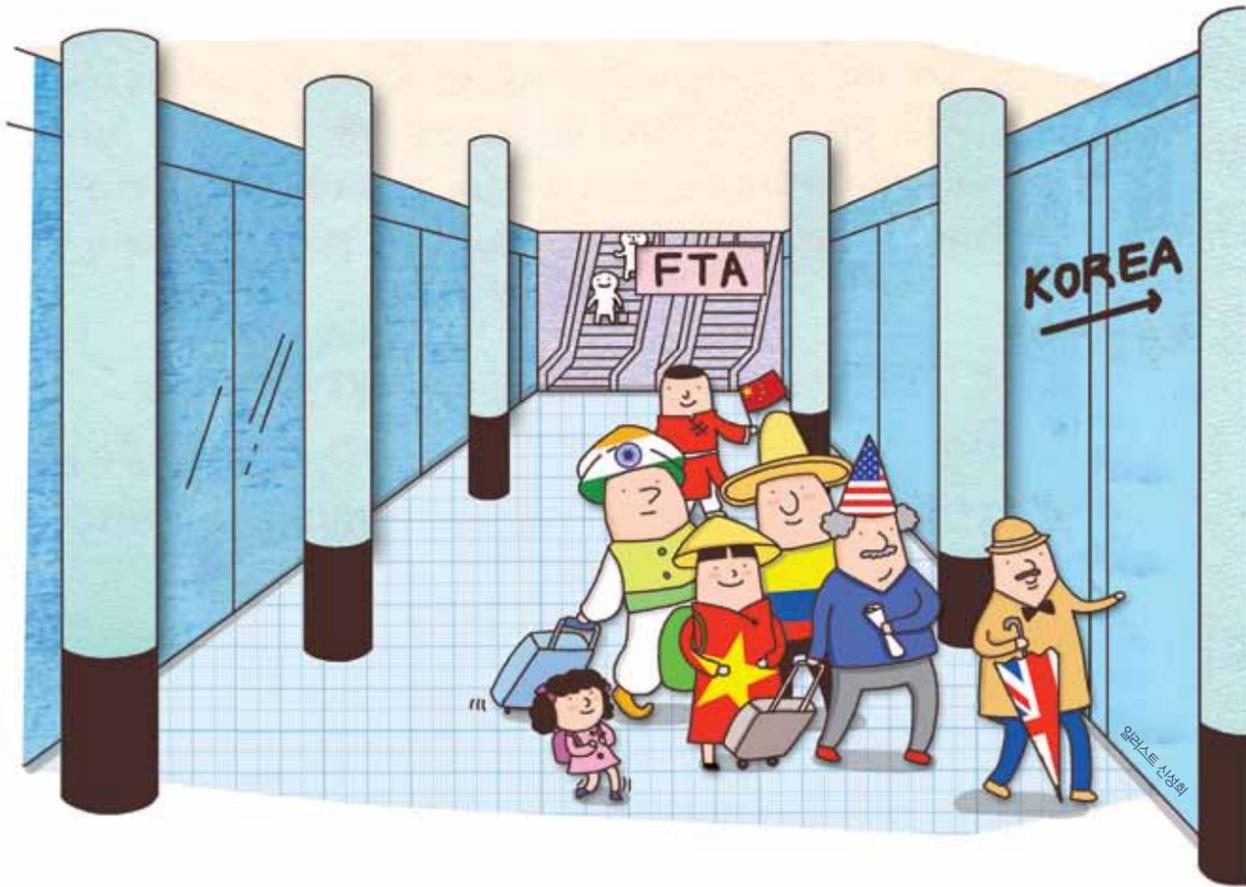
06



20



26



한국, FTA 허브 국가로 도약

# EU, 미국, 아세안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맺은 아시아 유일의 국가

글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

우리나라 무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조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로 볼 때 12월 10일을 전후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연초만 해도 EU 재정위기 지속과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었다. 이같이 어려운 대외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역이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커다란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 FTA 허브 국가 혜택 크게 증가

한국무역협회는 한·EU FTA 1주년과 한·미 FTA 8개월을 맞

아 그 효과를 분석해 봤다. 그 결과 한·EU FTA 발효 후 1년간(2011년 7월~2012년 6월)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1.0% 감소하고 FTA 비수혜품목의 수출도 18.8%나 감소했으나, FTA 수혜품목은 수출이 18.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혜품목에 대한 일본(-1.7%), 중국(-0.2%), 대만(-4.1%)의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수입증가율이 3.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18.4%에 달한 것은 FTA 효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대미 수출 역시 한·미 FTA 발효 후 8개월(2012년 3~10월) 동안 전년 대비 2.3% 증가한 391억4,000만 달러, 수입은 6.1% 감소한 293억 달러, 무역수지는 27억8,000만 달러 늘어난 98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FTA 수혜품목과 비수혜품목을 비교해 보면, 한·미 FTA 발효 후 4개월(3~6월)간 FTA 비수혜품목의 대미 수출은 1.7% 감소했으나, 수혜품목의 수출은 13.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FTA 수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이 2.8%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히 시장의 호조라기보다는 FTA 효과에 의한 수출증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EU, 미국, 아세안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로서 FTA 허브국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금년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금년 1~9월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11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한 것으로 9월말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투자가 33억 달러로 131%, 중국, 대만, 홍콩 등을 포함한 중화권투자는 28억 달러로 146%가 늘었다. 미국투자 역시 19억 달러로 44%가 늘었는데 특히 한·미 FTA 발효 후인 2~3분기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0%나 증가했다. 지난해 대한 외국인투자가 4.6%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외국인투자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FTA 허브 효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 증가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한·중, 한·중·일 FTA 등 역내 경제 통합 적극 동참해야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그동안 거대 선진경제권, 신흥시장, 자원부국 위주로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45개국과의 FTA를 통해 전 세계 GDP의 57.3%에 달하는 경제영토를 확보했다. 이는 칠레(78.5%), 멕시코(64.1%)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으로 경쟁국인 중국(16.1%), 일본(17.0%)을 압도하고 있다.(2010년 명목 GDP 기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마무리한 우리나라는 금년 5월 중국과의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현재 4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역내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18~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FTA와 ASEAN+6(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

금년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금년 1~9월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11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투자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FTA 허브 효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 증가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가 참가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ASEAN Framework of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개시 선언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한·중·일 FTA, RCEP 협상개시 선언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Trans Pacific Partnership)과 함께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간의 주도권 다툼과 이합집산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가 타결될 경우 3국의 GDP규모는 14조3,000억 달러에 달해 NAFTA(18조 달러), EU(17조5,000억 달러)에 이은 세계 3위의 시장이 될 것이다. RCEP은 참가국이 16개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성사될 경우 GDP규모가 19조8,000억 달러에 달해 NAFTA와 EU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향후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양자 및 다자간 FTA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나 이들 국가들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역내 지역통합 논의에 대응해야 할까? 먼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한·중 FTA를 통해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중국의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각종 관세, 비관세장벽을 크게 낮춤으로써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의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중국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의 경우 중국의 시장개방 수준을 최대한 높이면서 일본의 농수산물시장 개방폭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RCEP은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참여국이 많고 경제력이나 발전수준 면에서 격차가 심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FTA, TPP 등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아·태지역의 역내 경제통합과 시장개방 논의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 FTA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한·중·일 FTA, RCEP 등 다자간 협상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의 역내 경제통합 흐름에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

한국의 자유무역 도전과 극복의 역사

# 자유무역, 한국에 '도전과 응전'을 선사하다

한국은 GATT·WTO 협정에 기초한 점진적인 세계무역 자유화 과정의 최대 수혜자로 적극적, 능동적 개방을 통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며,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최근 세계 통상환경은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FTA 체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글 장승규 기자

## 한국, GATT와 WTO를 중심으로 자유무역 체제에 적극 참여

한국은 자유무역의 물결을 타고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다. 자유무역 체제가 아니었다면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외채투성이 최빈국이 세계 8대 무역 강국으로 부상하는 기적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하면서 세계통상 무대에 등장했다. 한국이 처음 GATT 가입을 시도한 시기는 1950년이였다. 당시 정부대표단은 영국에서 진행되던 3차 GATT 무역협상에 참석하여 가입협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국회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가입이 무산됐다.

1995년 GATT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체됐다. WTO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 또한 GATT와 달리 WTO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WTO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는 것이다. WTO 체제는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삼는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특정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게 적용한다면 나머지 회원국에도 전부 같은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바로 차별 없는 교역원칙이다.

반면 FTA는 양국 간 또는 제한된 역내 국가 간 관세 철폐를 근간으로 하는 무역자유화 협정이다. 협정 당사국 간에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해 무역을 늘릴 수 있다. WTO는 FTA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무역장벽이 제거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201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57.3%와 경제 고속도로를 연결한 셈이다.

## 한국은 비교우위 자유무역 이론의 산 증거

자유무역의 이점은 비교우위로 뒷받침 된다. 비교우위는 나라마다, 개인마다, 기업마다 특정 분야에선 경쟁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가령 한국에서 한 명의 노동

## 한국의 자유무역 역사



자가 1년에 쌀 5섬 또는 옷 5벌을 생산하는 데 반해 말레이시아 노동자는 쌀 4섬 또는 옷 2벌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옷 한 벌과 쌀 한 섬의 가격은 1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 얼핏 보면 한국 노동자가 쌀과 옷을 모두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자가 말레이시아 노동자에 비해 절대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을 한다면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모두 이로울 수 있다. 한국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옷에 특화하고 말레이시아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쌀에 특화한 후 양측이 교환하면 서로 이득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노동자는 쌀 한 섬을 더 생산하려면 옷 한 벌을 포기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옷 2분의 1벌만 포기하면 되므로 한국은 옷, 말레이시아는 쌀을 집중 생산해 교환하는 게 이득이다.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서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다. 한국은 좋은 옷을 생산하는데 왜 우리만 고생하면서 쌀을 생산하는가라는 의문이다. 상대적 열위에 있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이런 의문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때 중남미 국가에서 인기를 얻었다. 저개발 국가는 아무리 경제 개발을 해도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고 선진국에 경제가 종속되어 착취당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종속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1970년대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으로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특히 한국이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정도의 초고속 경제발전을 하면서 환상이 완전히 깨졌다. 1950년대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가발산업에서 시작해 신발, 섬유, 가전을 거쳐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리드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이제 세계 경제는 점차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시장 개방을 감시 막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자유무역은 어려운 도전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이 담겨있다.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세계 10대 무역 강국에 올라선 한국이 이를 잘 보여준다.

## FTA로 자유무역 효과 높여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의 효과는 긍정적이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로 양국 간 교역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무선통신기기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이 늘었다. 교역량은 2003년 18억5,200만 달러에서 2010년 71억6,800만 달러로 뛰었다. 2010년 자동차 수출은 11만2,000대로 FTA 발효 전보다 5배 늘어났다. 우리나라 기업의 칠레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18.8%에서 39%로 상승했다.

2006년 발효된 싱가포르와의 FTA는 교역량과 무역흑자를 늘렸다. 싱가포르는 이미 고도로 개방된 국가였다. 그래서 FTA 발효로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무역 흑자규모는 발효 이전인 2003년 23억 달러에서 2010년 79억 달러로 급증했고 양국 간 투자도 늘어났다. 같은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로 서비스시장이 개방되고 투자 자유화가 확대되면서 STX그룹의 노르웨이 조선업체 인수, UBS의 하나 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등 양 지역 간의 투자도 활발해졌다.

2007년 아세안(ASEAN)과의 FTA가 발효된 덕분에 석유제품·선박·철강 등의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교역뿐만 아니라 인적·문화교류도 늘었다. 작년에 발효된 한·EU FTA와 한·페루 FTA, 올해 발효된 한·미 FTA도 그 효과가 빠르게 가시화하고 있다. EU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체결로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한·미 FTA의 경우 협정 발효 후 6개월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미수출이 2.9% 증가한 306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

신흥국들과의 FTA 추진으로 신시장 개척에 나서

# 세계 경제의 신성장동력, FTA로 공략할 때

향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은 신흥국들이다. 세계 경기 침체로 선진국 시장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은 신흥국들과의 적극적인 FTA를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글 이홍표 기자

## 터키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지난 11월 22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터키 측 의회 비준이 완료되면 양국은 우선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을 발효시킨 뒤 1년 내로 기타협정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터키는 우리나라의 9번째 FTA 무역권(개별국으로는 46번째)이 된다.

터키는 OECD국가 중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국가로 최근 2년간 터키 경제는 2010년 8%, 2011년 8.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터키는 인구의 63%가 35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거대 구매력을 갖춘 선진 시장으로서의 매력과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시장으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

또 터키는 세계 최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EU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으며,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진출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실제로 터키는 인접한 EU와 FTA보다 협력단계가 높은 관세동맹을 맺고 있다.

## 중남미 3위 소비시장 콜롬비아와 FTA 가서명

한편 한국과 중남미 핵심 소비시장인 콜롬비아와의 FTA가 지난 8월 31일 가서명됐다. 양국은 정식 서명 및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은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와 피로 맺어진 '혈맹국'으로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6·25 전쟁 참전국가다.

콜롬비아가 위치한 중남미는 최근 10년간 정치적 안정, 거대한 소비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중남미 중에서도 콜롬비아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장이다. 콜롬비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 5%가량씩 성장 중이다.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었던 지난해 역시 5.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콜롬비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탄탄한 내수시장'이다. 콜롬비아는 인구



한·중 FTA 기대효과(추정치)

양허 시나리오	발효 후 5년			발효 후 10년		
	GDP(%)	후생(억 달러)	고용(천 명)	GDP(%)	후생(억 달러)	고용(천 명)
낮은 수준	0.95	176.5	187.5	2.28	275.9	244.4
높은 수준	1.25	233.3	247.3	3.04	365.8	325.6

낮은 수준: 농업 10%, 제조업 10%, 높은 수준: 쌀 제외 전면 개방  
자료: 기획재정부

4,600만 명의 중남미 3위 소비시장이다. 또한 한·콜롬비아 FTA가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교역형태가 상호보완적이라는 데 있다. 한국은 콜롬비아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콜롬비아는 한국에 농산물과 천연자원을 수출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 콜롬비아 최대 수입품은 커피(29.9%), 원유(9.7%), 합금철(15.5%), 유연탄(9.4%)순이었다. 즉 FTA로 관세장벽이 없어지면 이들 자원을 보다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어 국내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등과의 FTA 체결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

터키 및 콜롬비아와의 FTA 만큼이나 중요한 FTA가 또 있다. 바로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과의 FTA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 3월 시작된 공동연구를 거쳐, 7여 년의 준비기간을 갖고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바 있다. 현재 네 차례의 협상이 진행됐다.

1992년 수교 후 한국과 중국은 교역 및 투자규모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수교 당시 2억 달러에 그쳤던 대중 투자 규모가 25배 성장해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3위 투자국으로 떠올랐다. 또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규모는 2,400억 달러로 무려 38배 증가했다. 중국은 원재료·농산물·금속·광산물·방직원료·가죽 원재료 등 자원밀집형과 노동밀집형 상품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화학제품·반도체 등의 전자제품·통신기기·자동차·가전제품·선박·공업용 방직품 등 기술 및 자본 집약형 제품에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한·중 FTA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13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의 내

수시장에 대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간은 '세계의 생산공장'이 었지만 이제는 '세계의 소비시장'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중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를 이끌 차세대 엔진으로 평가 받는 곳이 있다. 바로 총인구 5억7,000만 명, 총면적 450만 km<sup>2</sup>의 거대 시장인 아세안(ASEAN)이다. 이 중 한국과 개별 FTA를 추진 중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말 그대로 아세안의 '핵심 국가'다. 한국은 지난 8월 베트남과 FTA 협상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다. 베트남은 우리의 8위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수출액은 8배나 증가했다. 무역수지 역시 증가세를 유지해 2011년 84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베트남 FTA는 양국 간 경제 발전에 새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작년 11월 발표된 한국, 베트남 간의 공동연구조사에 따르면 양국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면 두 나라 모두 GDP와 수출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도네시아는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기회의 땅'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4,800만 명(세계 4위)로 연평균 6%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 동남아 최대의 산유국이며 석탄(4위), 주석(2위), 동(3위), 금(7위), 니켈(2위)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해 세계 경제의 자원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FTA보다 더 포괄적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 중이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규모가 오는 2020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

FTA 힘으로 국가위상 드높여

# 세계 속의 한국, 말춤 추며 세계로 세계로

2012년 한국은 선진국 및 신흥국과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며 무역강국으로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대외적인 평가도 좋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S&P, 피치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 조정 받은 것. 지난 10월에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며 국가 위상을 드높였으며, 가수 사이의 '강남 스타일'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 역대 최고 조회 수를 기록했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를 걷는 것과 다르게 한국은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다.

글 이진원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GCF  
메가톤급  
국제기구 유치**

지난 10월 20일, 국제 외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사건이 일어났다.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 도시를 결정하는 24개 이사국들의 투표 결과, 인천 송도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국가로 최종 선정된 것. 녹색기후기금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만든 기후변화 특화기금이다.

녹색기후기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사국과 대리이사국인 41개 선진국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 재원 조성을 통해 녹색기후기금은 총 8,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4조 원 규모의 메가톤급 국제기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다.

녹색기후기금 유치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어젠다(agenda)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세계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간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녹색 성장'의 가시적인 성과이면서 동시에 세계 경제의 핵심 미래 아이콘인 녹색 산업의 패러다임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녹색기후기금 유치로 한국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환경 부문 세계은행'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에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우리의 무역구조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녹색기후기금 유치 전달인 10월 19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2013~2014년도 임기로, 이는 1996~1997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선출에 이은 두 번째 진출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한 국제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의 기여 실적과 앞으로의 기여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

숫자로 보는 **GCF** (녹색기후기금)

**1000** 명

예상 상주 주재원 수(중장기)

**120** 회

연간 국제회의 개최 수

**3800** 억 원

녹색기후기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



2020년까지 총 904조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로 한국은 '환경 부문 세계은행'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녹색기후기금 유치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재선출은 식민지 수탈과 전쟁으로 반세기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으로 손꼽히던 한국이 참화를 극복하고 원조대상국에서 원조국으로 변신한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2012년의 큰 성과다.

**한국 스타일에  
깜짝 놀란 세계**

2012년 한국의 여세는 외교에만 그치지 않았다. 아시아 지역에서만 머물던 한류의 바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 일등 공신은 단연 싸이다. 그는 스스로를 'B급'으로 규정하며 재미를 추구해 국경과 인종, 언어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인기를 거두고 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점차 입소문이나며 유명세를 타더니 8억 376만 928건(11월 24일 기준)의 조회수를 돌파, 유튜브 역사상 최다 조회수 기록을 갖고 있던 팝스타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새롭게 1위에 랭크됐다.

패러디 영상도 전 세계에서 다수 제작됐다. 미국 민주당 후보로 나선 버락 오바마(51) 대통령과 공화당 미트 롬니(65) 후보가 맞붙은 최근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올해 들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11월 21일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들 후보를 풍자한 패러디영상을 비롯해 필리핀 세부 교도소 재소자들의 '교도소 강남스타일' 등이 인기를 끌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노엄 촘스키 석좌교수,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인 새 둥지 모양의 '나오차오(鸟巢)'를 공동설계한 중국의 반체제 미술가 아이웨이웨이도 '강남스타일' 패러디 열풍에 가세하며 화제가 됐다. 심지어 폐쇄된 북한에서도 말춤을 추며 강남스타일 열풍에 동참했다.

한류 열풍에는 싸이 뿐만 아니라 많은 K팝 아이돌 그룹도 한 몫했다. 일본에서는 장근석과 카라가, 중국에서는 슈퍼주니어가 큰 활약을 보였다. 한류의 변방이었던 유럽에는 소녀시대, 샤이니, 빅뱅, 비스트, 동방신기 등 아이돌 그룹이 중심이 돼, 그간 아시아 지역에 국한됐던 한류 열풍을 유럽에까지 전파시켰다.

한류 열풍은 관광객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들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11월 21일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5년 6월, 캐나다 여행객이 부산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50년간 비약적으로 늘었다. 1961년 1만 명 수준에서 1978년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10년마다 거의 2배씩 증가했다. 1988년 234만 명, 1998년 425만 명, 2010년 880만 명을 기록한

이후에는 매년 약 100만 명씩 증가한 것. 특히 2007년 이후 5년간 증가율은 5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이 FTA 대상국**

한국의 달라진 위상은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서 우선적으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국토와 인구 등 내수시장의 불가피한 한계로 인해 수출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전 국가적으로 힘을 쏟았다.

한국의 성장 기반은 FTA에 있었다.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되며 시작된 한국의 FTA 역사는 2006년 한·싱가포르 FTA, 2006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과의 FTA로 대상국가가 확대됐다. 이듬해에는 한·싱가포르 FTA를 발판으로 아세안(10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이후 더 많은 국가와의 체결에 박차를 가해 2010년 1월 한·인도 CEPA, 2011년 7월 한·EU FTA, 2011년 8월 한·페루 FTA, 2012년 3월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발표시켰다. 현재 201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경제의 57.3%를 차지하는 45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한·콜롬비아 FTA는 올 8월에 가서명 됐고,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은 11월에 통과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FTA 체결을 통해 다른 경쟁국 기업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다.

한국은 올해 FTA를 통해 두 가지 결실을 거뒀다. 첫 번째는 세계 무역규모 순위에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8위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후한의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2년 연속으로 전체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며, 무역규모 순위를 8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한·미, 한·EU FTA 발효 및 수출지역 다변화 전략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자동차부품, 섬유 등 관세가 인하된 수출 품목의 수출이 13.5% 증가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한·미 FTA 발효 후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306억3,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수출 다변화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올해 10월까지 아세안 10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 대한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7.3% 증가해 5대 수출 지역 중 가장 많이 늘었다. 한·아세안 FTA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국가 신용등급 '그랜드슬램' 달성**

또 하나의 결실은 국가 신용등급의 비약적인 상승이다. 2012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S&P, 피치가 모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같은 해에 모두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국은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2011년 이후 A레벨 이상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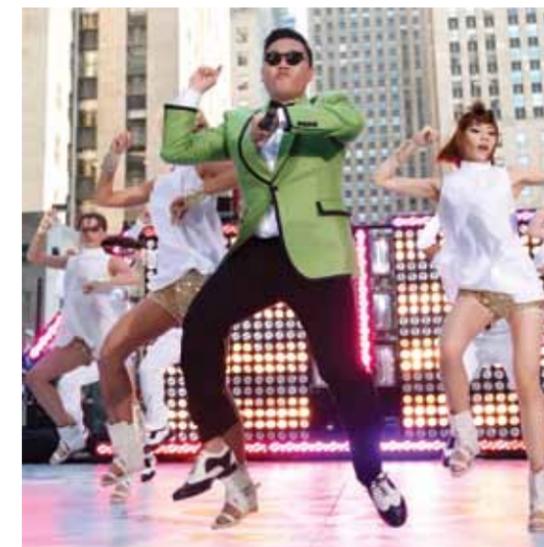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 말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약 5년간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의 신용등급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다. 이 기간 한국에 대한 무디스 신용등급은 A2에서 Aa3로 2계단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A에서 A+로, 피치는 A+에서 AA-로 각각 1계단 높아졌다.

신용등급 상승의 주된 이유는 재정건전성 확보에서 찾을 수 있지만 FTA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FTA 체결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효율적인 무역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문에서 장벽이 사라지면서 수출과 투자의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도 하다. 특히 한·미 FTA의 발효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해소되면서 그간 한국 신용등급 상승의 발목을 잡아왔던 '대북 리스크'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세계 3대 경제권 탄생의 길 열려**

지난 11월 20일 개시가 선언된 한·중·일 FTA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201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함께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 17조6,000억 달러)의 뒤를 잇는 14조3,000억 달러 규모의 통합시장이 열리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한·중·일 FTA가 지역 차원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한·중·일 FTA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던 한류의 바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했다. 이는 제조업 강국이었던 한국이 문화적으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도화선이 됐다.

FTA와 내수 활성화

# 경쟁 촉진·시장 규모 확대·규제 완화로 장기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도움

흔히 FTA의 효과로 수출 증가, 투자 유치 등의 대외적 효과를 언급하곤 한다. 그렇지만 FTA는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 관세 인하 및 국내 시장 경쟁 촉진, 시장규모 확대, 개혁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글 이정익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는 관세 인하 및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EU FTA 및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삼겹살, 오렌지, 와인 등 먹거리 중심의 수입 소비재와 수입 자동차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FTA 시장규모 클수록 경제성장 촉진 효과 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을 망라한 총 45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전 세계 GDP의 약 57.3%에 달하는 커다란 경제영토를 확보했다. 또한 금년 8월 한·콜롬비아 FTA가 가세되고 11월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경제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해외시장 개척과 교역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후생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실제로 FTA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의하면 일반적으로 자국 시장규모 대비 FTA 체결국들의 총 시장규모가 클수록 FTA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는 세계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제품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경제학 문헌을 보면, FTA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주로 연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FTA는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함으로써 교역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FTA는 경쟁력 있는 제품의 시장규모 확대를 통해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trade creating effect)가 있는 반면, FTA 체결국이 아닌 기존 교역국과의 무역은 감소하는 효과(trade diverting effect)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00~2011년 기간 중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 규모를 살펴보면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기간(2004~2011년)의 연평균 교역량은 이전 기간의 연평균 교역량에 비해 312% 증가하

였으며, 동 기간 중 싱가포르와의 교역량도 한·싱가포르 FTA 체결 이후 기간(2006~2011년)의 연평균 교역량이 이전 기간의 연평균 교역량에 비해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와의 교역량은 우리나라의 2011년 총 교역량 중 약 11%를 차지하면서 FTA가 중국, 미국, 일본에 편중되었던 우리나라의 교역 패턴 다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FTA는 장기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도움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논할 때 통상 이와 같은 무역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FTA는 장기적으로 내수(domestic demand)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시장규모가 작은 신흥시장국의 경우 내수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FTA를 통해 확장된 경제영토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growth engine)을 발굴할 여지가 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FTA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이 소비와 투자를 늘려 장기적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FTA는 관세 인하 및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EU FTA 및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삼겹살, 오렌지, 와인 등 먹거리 중심의 수입 소비재와 수입 자동차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은 이와 경쟁하는 국내 제품의 가격에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FTA는 시장규모 확대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국내 투자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EU는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후 1년 동안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전년 동기 대비 35% 늘렸으며 미국도 한·미 FTA 발효 후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전년 동기 대비 74% 늘렸다.

또한 우리나라와 거대 경제권 간의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 및 낮아진 비관세장벽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해외로 진출했던 우리 기업은 생산시설을 국내로 재이전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점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아직 체결하지 않은 해외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를 통해 우회적으로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유인이 존재한



근 10년 사이 한국의 동시다발적인 FTA가 결실을 맺으면서 FTA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해외 기업의 대 한국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초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CEO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간담회 모습.

다. FTA 체결에 따른 투자 증가 및 이로 인해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FTA는 서비스 부문과 같이 해외로부터 경쟁이 제한된 분야에 대한 개혁과 규제 완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FTA 체결국의 시장개발 확대,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유망 직종이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FTA는 이와 같은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FTA는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내수 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경쟁력 있는 업종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보다 저렴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 소비가 확대되는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수의 성장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FTA의 내수 진작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독과점 수입 체계 및 유통구조 개선, 기업 투자 여건 개선, 정책·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화 등과 같은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취약 분야는 단기적으로 FTA 협상 과정에서 취약 분야 배려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으로 인해 비교우위가 없는 업종에서는 수요 감소로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 부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 본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해 한·EU, 올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의 FTA 전략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FTA가 한국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지난해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서며 대외의존도(무역의존도)가  
 GDP의 113.2%를 기록했습니다. 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비중도 점차 높  
 아지고 있는데, 중국 등 협상중인 FTA가 체결되면 FTA 체결국 교역비  
 중은 80% 이상이 될 것입니다. 무역을 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 힘든 우리  
 나라 현실에서 FTA 체결은 국내 기업에게 무역의 기회를 더욱 확대 시킬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은 약 8만3,000개(대기업  
 2,000개)이며, 매년 3,000~4,000개 기업이 수출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체 중소기업(313만 개) 중 직접 수출기업은 8만3,000개  
 (2.7%)에 불과해, 중소기업 강국 독일(전체 315만 개 중 10.8%)에 비해 크  
 게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FTA 확대는 수출에 참여하는 우리 중소기업  
 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송중호 중소기업청장

# FTA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선택’ 아닌 ‘필수’

국내 기업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FTA  
 시대에 가장 FTA활용이 필요한  
 곳이다. 중소기업청은 인력과  
 시스템이 대기업에 비해  
 열세인 국내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상담·컨설팅 외에도 해외  
 바이어 발굴, 국제 표준 획득,  
 자금 및 보증 지원 등 전방위적인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글 우중국 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도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7월 중소기업청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  
 다. 이를 통해 FTA 관세 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및 시장개척으로 미국 및 EU시장 수출의 비약  
 적 증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기존 바이어의 주문 증가 및 신규 바이어 개척으로  
 생산시설 확장 그리고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봤습니다. 또한 한·미 FTA 발효 전후(2012년 3월  
 ~9월),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실적 분석 결과, 최근 수출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대미 수  
 출증가율(9.2%)이 대세계 수출증가율(1.9%) 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연평균 대미 수  
 출증가율(2.4%)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장에서 보기에 중소기업들은 FTA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FTA는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과 판로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  
 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  
 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등의 영향으로 FTA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 전담 인력의 부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등으로 FTA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  
 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다수입니다. 수출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결과(중소기업중앙회, 2012년 6  
 월)에 따르면, FTA 효과에 대해 체감하고 있다(34.4%)는 응답보다는 체감하지 못한다(39.3%)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이 FTA를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로벌 무역환경이 FTA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개별 기업별 FTA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경영자(CEO)의 FTA에 대한 인식의 전  
 환이 필요합니다. 사내 조직을 FTA 활용지원이 가능한 FTA 친화형(FTA 전담자 및 전담부서 운영,  
 FTA체결국 시장현황 등 분석)으로 재정비해야 하구요. 아울러, 기업의 FTA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직원  
 의 원산지관리사 자격과정 교육 파견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어떤 FTA 활용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에서는 FTA 지원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센  
 터별(11개) FTA 전담자를 지정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FTA 담당자에 대한 원산지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1개 수출지원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FTA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총 1,424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 관세사를 통한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지원 및 원  
 산지증명서 작성 등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및 EU시장 수출 전략품목 생산 중  
 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자금, 보증, 해외마케팅 등 23개 관련 유관기업이 연  
 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623개사를 선정했고, 하반기엔 500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  
 입니다.

FTA 체결국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및 EU 등 FTA 체결국 유망품목의 해외바이어를 초  
 청하여 국내 중소기업과의 매칭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4월 유망 소비재, 9월 조달시  
 장·생산재, 10월 한류 문화콘텐츠 등의 주제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FTA 체결국 무역촉진단을 파  
 견하고(2012년 72회), 해외 유명 규격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증마크 획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NRTL 등 31개 규격에 600개사, EU의 CE 등 14개 규격에 1,200개사를 지원했습니다.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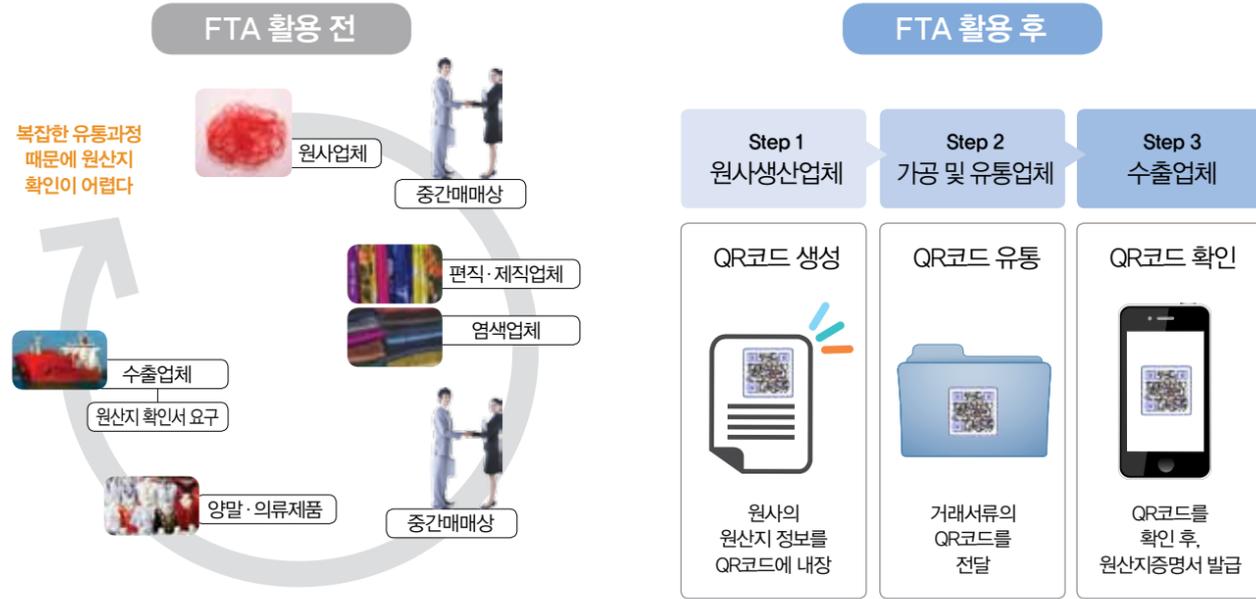
“  
 FTA 확대는  
 수출에 참여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FTA활용 비즈니스 모델-다단계 거래 단순화 모델

# QR코드로 복잡한 유통단계 '한 큐'에 잡았다

최종 수출자가 FTA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재료·부품 공급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야 최종 수출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 단계가 복잡해지고, 유통업자가 원산지 확인에 관심이 없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다단계 거래 단순화 모델'이다.

글 우중국 기자



A사는 의류를 11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로서, 수출물량의 대부분을 대미 수출(75%)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44억 원, 직원 5명 규모의 전형적인 섬유산업의 중소기업이다. 섬유업의 경우 한·미 FTA에서는 원사 기준(원사가 한국산이어야 최종 제품도 한국산 인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원사-편직-제직-염색-의류 제조-수출업체'까지의 공급 단계가 복잡하고 특히 각 단계마다 중간매매상이 끼어 있어 유통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다.

## 유통단계 복잡해 원산지 확인 힘들어

특히 중간매매상의 경우 원산지 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데다 관리능력도 부족하고 비협조적이어서 최종 수출자로서는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이 요원해 보인다. 유통과정이 복잡할 경우 원산지확인서의 오류 발급 시 책임소재 또한 모호해서 법적 인 부담이 있다.

A사는 관세청에 이러한 상황을 문의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초 생산자가 QR코드를 활용해 원산지 증명을 하는 해결방법을 찾았다. 즉, 원사 생산업체는 거래 서류에 원산지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넣고, 최종 수출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확인하면 미리 지정된 저장공간에 담긴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통상인들 또한 거래서류만 넘기면 되므로 원산지 확인에 대한 부담과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워졌다.

관세 인하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서 A사는 중국업체를 따돌리고 올해 해외 신규 바이어 5곳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주문량 또한 한·미 FTA 발효 전 22만 달러에서 발효 후 65만 달러로 3배가량 늘었고, 현재는 추가 주문량 95만 달러를 확보한 상황이다. 또한 선제적 원산지 확인 및 중간매매상의 원산지확인서 생략으로 관리비용 97%를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수출증가를 또한 동종업계 평균인 19.2%보다 큰 폭인 290%를 기록했다. [1]

#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한민국!

안중만



FTA는 경제성장의 디딤돌입니다.



전북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해 전국 센터 중 실적 2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컨설턴트와 관세사가 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가려운 곳 긁어드려요

전라북도에는 2012년 현재 3,443개의 제조업체가 있다. 그 중 90%인 3,163개 업체가 소기업이다. 전북지역에는 56개의 산업단지가 있을 정도로 중·소 제조업체가 많은데 특히 자동차 부품 생산 비중이 높다. 전주에 위치한 전북FTA활용지원센터는 소재지인 전주를 허브로 전북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가장 분주한 센터 가운데 하나다.

글 장한주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쌀쌀한 바람이 불던 아침, 전주역에서 차로 15분 거리인 전북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전북센터)를 찾았다. 전북센터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내에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센터에서 지원하는 업무 분야는 원산지 인증지원, 컨설팅 지원단 운영, FTA 네트워킹 사업, FTA 관련 정보 제공, FTA 활용 설명회 개최와 교육, FTA 체결(예상) 국 시장 개척 등이다. 하지만, 산업단지만 56개 달하는 전북의 산업구조적인 특성상 센터 직원들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전북센터의 유영진 관세사는 “업체를 만나면 처음 하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

떻게 시작해야 하나’이다. 실제로 교육을 받고 나서도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 준비 작업에 들어가면 난감해 하는 업체가 많다”고 전하면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현장으로 나가서 서류 작성 하나부터 컨설팅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센터는 지난해 3월 개소 후 첫해 총 18회의 설명회나 교육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FTA 알리기에 나섰다. 덕분에 올해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설명회나 교육 횟수를 줄이고 업체를 찾아 현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센터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해 9명. 대부분의 직원들이 해외 마케팅팀 업무 경험자들이라 FTA 관련 서비스와 함께 해외 바이어 개척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전북FTA활용지원센터의 FTA 활용 성공 사례



### 1인 기업도 ‘인증수출자’ 획득 가능

라면 생산업체  
새롬식품

새롬식품은 라면 생산업체로 전체 직원 45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45명 가운데 사무직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전라북도 완주에 공장을 설립,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해 라면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첨가물을 최대한 배제한 친환경 라면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회사 측은 원재료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해 라면을 생산하고 있었고, 글루텐 등 일부 소량의 원재료만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면의 원산지는 당연히 한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새롬식품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던 라면 수출업체인 S사(대기업)로부터 한·미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확인서를 요청 받게 됐다. 하지만 새롬식품은 해외시장 판로를 확장하기 어려워 주로 국내시장으로만 라면을 납품하고 있었고, 우리 농산품으로 만드는 라면에 대해 굳이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다.

전북센터에서는 이 같은 새롬식품의 상황을 파악한 후 원산지 확인서의 소명자료 작성 및 보관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결정, 새롬식품 각 팀 별 담당자를 선정해 원산지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할 때 업체 스스로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생산라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원재료가 투입되는 과정을 검토해 원산지 확인서 외에 원산지 소명서, BOM(자재명세서) 등 서류 작성방법과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새롬식품은 라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OEM 납품으로 매출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전북센터에서는 새롬식품처럼 판로가 국내로 한정돼 있는 업체를 선별해 FTA 대상국의 바이어 발굴에서부터 FTA 활용, 통관적인 부분까지 지원해 업체들의 매출 증진을 도울 예정이다.

화장품 수출 1인기업  
NSC 뷰티

NSC 뷰티는 2012년 7월 설립, 화장품을 수출하는 1인 기업으로 기계와 화장품이 조합된 홀케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특기할 만한 점은 대표 혼자서 기획·제조(임가공)·마케팅·구매 등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 회사 대표는 설립과 동시에 지난 7월경 전북센터가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FTA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대표는 한·EU FTA 체결로 명품 수입화장품이 국내로 값싸게 들어와 국내 화장품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FTA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각종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참여해 EU 시장으로 직접 뛰어 들었다. 또한 최근 일었던 유럽 국가들에서의 K-팝 열풍, 한류로 한국산 화장품이 경쟁국이랄 수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유리한 환경이 되어 주었다. 그 결과, NSC 뷰티는 설립 5개월 만에 유럽시장으로 수출을 뚫어 2억5,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를 뒤로 하고 바이어가 인증수출자 획득 및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바람에 업체 대표는 난감해졌다. 사실 원산지 인증은 대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였다. 상대국의 기본세율이 0%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2억 원이 넘는 수출물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 대표는 전북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전북센터는 1인기업도 요건만 맞으면 인증수출자를 획득할 수 있음을 세관을 통해 확인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통해 인증획득을 위한 추가 교육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인증 완료 후 유럽 바이어와 약 15~20억 원 이상 계약 성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유럽시장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고 전북센터의 FTA 대상국 바이어 발굴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기성 폐기물 건조기계·플랜트 설계기업 (주)가이아

## 까다로운 유럽 바이어들 만족...수출 '박차'

조금은 을씨년스러운 초겨울 날에 대전 대덕밸리(대덕연구단지)를 찾았다. 대덕밸리는 알려진 바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책임질 기업과 연구원들이 밀집한 연구단지다. 지난 7월 'FTA활용 중소기업 성공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오른 (주)가이아도 바로 이 대덕밸리에 위치하고 있다. 인류의 숙제랄 수 있는 유기성 쓰레기 건조 기계와 플랜트 수출기업 가이아는 2013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글 장현주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가이아



왼쪽 전남 곡성 소재 가이아 제2공장. 가운데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 설치된 가이아의 유기성 폐기물 건조기. 기내식 잔여물을 건조, 쓰레기의 부피를 18분의 1로 줄인다. 오른쪽 가이아는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을 위해 유럽, 미국 등지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유기물 폐기물 건조와 폐기물 오수 정화 기술 등을 알렸다.

1992년에 설립, 22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주)가이아는 유기성 폐기물 건조와 탈취 사업(기계·플랜트), 페타이어나 페플라 스틱 등을 원재료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 곳에서 왔으며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하는 최신목 대표이사(회장)는 7년 전 가이아를 인수했다. 가이아의 설립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역임한 한필순 박사다. 1992년은 한국이 런던협약(폐기물의 해양 투기 및 해상소각을 규제하는 국제 해양오염 방지조약)에 가입한 해로 대덕연구단지에서 '박사 중의 박사'로 통하는 한필순 박사가 가이아를 설립한 해이기도 하다. 이후 한 박사는 연구개발에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데, 가이아의 기계·플랜트 수출이 2009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 것만 봐도 원천기술 개발에 어느 정도의 공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 꾸준한 국제 박람회 참여로 EU 시장 노크

가이아는 EU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유럽지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제품과 플랜트 설계 원천기술을 알렸다. 환경과 기술, 시스템을 중요시하는 유럽시장의 특성상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 유기성 폐기물을 건조, 부피를 현격하게 줄이는 건조기의 원리에 대한 최 회장의 열정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런던협약에 가입하긴 했으나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허용했던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유기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규제합니다. 유기성 폐기물 중 가장 흔한 것이 가축분뇨와 가정의 싱크대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sludge) 등이예요. 음식물 쓰레기의 70%는 물입니다. 이제 그 물을 바다에 투척하지 못하게 됐어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폐기 오수를 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본질적인 부분인 거죠.”

최 회장은 2014년부터는 산업용 폐기물과 오수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는 만큼 우리 정부와 지자체들도 유럽 선진국들의 대응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이아의 주요 수출국은 스위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으로 가이아의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기내식 잔여 쓰레기를 건조하는 기계는 건조 후 쓰레기의 부피를 18분의 1로까지 줄이는 획기적인 기술로 현재

“

한·EU FTA 발효로 가시적으로는 관세 1.7%를 절감하게 됐지만 사실상 가산세 등을 감안하면 거의 5%에 달하는 절감효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는 굉장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신목(주)가이아 대표이사 회장. 최 회장이 들고 있는 병 속에는 유기성 폐기물 건조 후 남은 찌꺼기 오수를 완전히 정화시킨 맑은 물이 들어있다.

모 국제공항과 계약을 논의 중이기도 하다.

가이아가 보유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천기술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다. 석유화학 물질인 페플라 스틱, 페타이어를 처리해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는 석탄이나 가스에 비해 비용은 10분의 1로 낮추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월등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는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제2공장에서 생산 중이다.

###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전문가 컨설팅으로 도움

EU 시장 외에도 미국과 일본 등으로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가이아의 매출 증가에는 한·EU FTA의 발효가 주효했다. 원자재 대부분을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2011년 6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한 후 종전 1.7%의 관세를 0%로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출은 지난해 약 23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28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현재 가이아 매출의 99%는 수출, 내수는 1%에 불과하다)

“사실 가이아를 인수하기 전에는 무역 분야에 오래 종사했었습니다. 보통 수출입에서 무역상의 이익은 1~2%에 불과해요. 한·EU FTA 발효로 가시적으로는 관세 1.7%를 절감하게 됐지

만 가산세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5%에 달하는 절감효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는 굉장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한·EU FTA 발효로 얻은 기업의 이익은 피부로 느낄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산지 증명 업무를 담당했던 정다운 대리는 “실무자로서 가장 큰 애로점은 세번(HS코드) 정리 등이었는데 중소기업청 소속 관세사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능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품을 교체하며 업그레이드하는 기계의 특성상 부품을 바꿀 때마다 원산지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관세사가 매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안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가이아는 한·EU FTA로 가시적인 매출 증대를 이뤄낸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는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가이아는 'FTA 효과'로 전남 곡성군에 본사 3배 규모의 제2공장 건립을 통해 26명의 직원 수를 60명으로 늘리는 고용 창출을 이루기도 했다. 최 회장은 “유기성 폐기물 건조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의 톱 기업으로 5년 이내에 10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



# 한눈에 보는 한국의 FTA 현황

- 발효(8개)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 타결(2개) 터키, 콜롬비아
- 협상중(6개) 캐나다,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
- 협상재개 여건조성 중(5개) 일본,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한·미 FTA 발효 6개월의 성과 심층 분석

## 대미수출 증가, FTA활용률 상승 지속

최근 세계경제 위기로 어려워진 대외 무역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미 FTA가 대미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미 FTA 활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 우중국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미 FTA 수혜 업종의 수출 증가율 (2012년 4~9월)



올 4~9월, 대미 수출증가율 2.9%, FTA 활용률은 65.0%

FTA무역종합지원센터(센터장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통관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한·미 FTA 발효 후인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306억3,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자동차(부품포함, 20.1%), 기계류(10.6%), 석유제품(25.0%) 등 한·미 FTA 수혜업종의 수출 증가율은 전체 대미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며 대미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금년 9월의 한·미 FTA 활용률은 65.0%로 발효초기인 4월(58.3%)보다 6.7%p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FTA 수혜업종인 자동차부품(68.0%), 섬유제품(72.7%) 및 기계류(71.2%)는 여전히 전체 활용율(65.0%)을 상회하는 높은 활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석유제품 활용율(39.2%)은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자동차부품, 섬유업종의 활용률이 높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등을 통해 중소수출기업들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

개한 것도 활용율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FTA를 활용한 대미 FTA 수출비중\*은 24.1%를 기록해 대미 FTA 체결국\*\* (14건 20개국)의 평균 대미 FTA 수출비중(31.1%) 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완성차의 FTA 관세혜택 유예(2016년 완전철폐) 및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의 FTA 활용율 저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FTA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강화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3년에는 한·미 FTA 사후검증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컨설팅 제공 등 사후검증 관련 지원책을 강화하고, 산업별·품목별로 특화된 맞춤형 지원 및 지방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식품 기업 등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수출지원제도와 FTA 지원제도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제도가 FTA 수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



중국, EU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한·미 FTA 발효 후 6개월간 전년 대비 2.9% 증가한 306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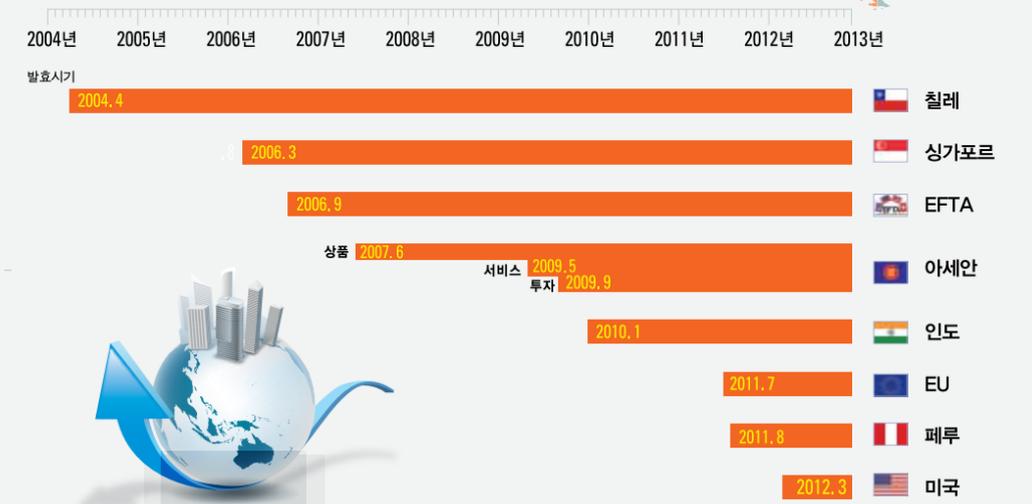
### 경제 영토

$$= \frac{\text{'자국 + FTA 체결국' GDP 합계}}{\text{전 세계 GDP}}$$

주요국 경제 영토 순위 (2010년 명목 GDP 기준)

랭킹	국가명	경제영토
1위	칠레	78.5
2위	멕시코	64.1
3위	한국	57.3
4위	싱가포르	51.8
5위	페루	38.7
6위	EFTA	36.6
7위	EU	33.4
8위	미국	32.7
9위	일본	17.0
10위	중국	16.1

자료 : 기획재정부(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업데이트)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미얀마,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FTA활용률 개념을 사용하면 정확하지만 국가별 활용률 통계가 없어 'FTA수출/총수출' 비중으로 국가간 상대적비교 \*\* 북미(NAFTA) 51.4%, 중남미(CAFTA-DR) 40.5%, 호주 34.6%, 싱가포르 4.9%

FTA 날개 달고 수출 드라이브

# 중소기업·농수산 제품 수출 효자 노릇 톡톡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기침체로 국내 수출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FTA가 수혜 품목 중심으로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대기업에 밀려 설 자리를 잃던 중소기업도 관세혜택을 등에 업고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위기라고 여겨진 농수산물 또한 FTA로 신규 판로를 만들고 있다.

글 이현주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 FTA는 중소기업 수출의 동력

**#1** 사격용 조준경(조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총포 몸통 위에 붙이는 렌즈)을 생산하는 수옵틱스. 2008년 세워진 이 업체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출전선에서 번번이 미국과 일본의 벽에 부딪히곤 했다. 처음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진출을 타진했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수출 주문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700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다. 수출 주문은 갈수록 밀려들고 있고 생산직원도 35명에서 55명으로 크게 늘었다. 1등 공신은 단연 한·미 FTA다. FTA 발효로 14.9%에 달하던 관세가 철폐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 실제로 지난 3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기존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이 대폭 늘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도 활발히 이뤄졌다. 임도현 수옵틱스 사장은 "FTA로 수출길이 열리고 고용도 창출하게 됐다"며 "FTA가 성장 발판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경남에 위치한 사격용 조준경 업체 수옵틱스는 올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지난해보다 2배 많은 700만 달러의 수출 주문량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대일본 수출에 주력하던 농수산물 수출이 FTA 효과로 시장이 다양화되면서 지난해 우리 농수산품의 세계 수출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0.9%나 늘었다.

**#2** 진주 광택 안료를 만드는 씨큐브도 마찬가지다. 이 업체는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수출량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주력시장인 유럽과 미국 수출물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35만 달러 수출에서 FTA가 발효된 지난 상반기에는 82만 달러로 늘어났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 때도 수출이 늘어 상반기 98만 달러에서 하반기 127만 달러로 3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8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000만 달러로 급증할 전망이다.

**#3** 신발업체인 까뮤인터내셔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FTA 닥터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수출을 늘리는 데 성공한 사례. 까뮤인터내셔널은 컨설팅을 통해 생산제품 모델별로 4.3~10%의 관세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FTA를 기회로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8%나 늘어났다. 의로기기업체 나눔테크는 한·EU FTA를 활용해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2011년 말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FTA 이후 관세철폐로 해외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품질이 세계적인 수준인 반면 가격 경쟁력에 밀려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던 중소기업들이 주인공이다. 이들 기업은 FTA를 성장의 날개로 삼고 있다. 특히 내수 시장에선 대기업의 강세에 밀려 기를 펴지 못했던 중소기업도 해외 시장을 성장 동력으로 여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를 전후한 올해 3~4월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했다. 대미 수출 중소기업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개 늘어난 9,271개를 기록했다.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4개월간 수혜품목과 비수혜품목으로 나눠 수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수혜품목의 수출은 1.7% 감소한 반면, 수혜품목의 수출은 13.5%가 증가했다. 한·EU FTA도 마찬가지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4월 까지 수출실적이 이전 같은 기간보다 7.8% 늘어났다.

## FTA 이후 농수산물 수출 국가 및 규모 확대

위기로 여겨졌던 농수산물 분야도 주목할 만하다. FTA로 농수산물에 대한 각국의 높은 관세가 인하 및 철폐되면서 농수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 지난해 우리 농수산품의 세계 수출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0.9%나 늘었다. 우선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대 아세안 농수산물 수출은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아세안으로의 농수산물 수출은 2007년 6월 FTA 발효 후 2008년 14.2%, 2009년 20.4%, 2010년 50.7%, 2011년 22.4% 성장을 해왔다. 2012년 상반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7.7%가 늘어났다.

대미 농수산물 수출도 꾸준한 증가세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이후 올 상반기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미국 지역으로의 농수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8%가 늘었다. 이 같은 수출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하반기 역시 전년의 실적을 무난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지역 역시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발효 전 1년(2010년 7월~2011년 6월)과 발효 후 1년(2011년 7월~2012년 6월)을 비교했을 때 17.6%의 수출 증가세가 나타났다.

농수산물 수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단연 'FTA 효과'로 꼽힌다. 올 상반기 우리 농수산품의 수출국 중 FTA 체결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까지 늘어났다. 이 같은 한국 농수산품의 인기는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1월 초 발표된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의 농수산품을 포함한 농림수산물 수출은 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와 FTA를 맺은 미국, 아세안, EU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우리의 농수산물 수출이 대일본 수출에 주력했던 것이 FTA 효과로 시장이 다양화됐고 규모 역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2]



일러스트 전희성

급변하는 동북아 통상 환경 진단 및 향후 과제

# 동아시아 거대경제권 탄생 임박... 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중·일 세 나라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동아시아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한·중·일 통상장관들은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로써 2003년 민간 공동연구가 시작된 이후 10년 동안 준비 작업을 거친 한·중·일 FTA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다.

글 신규섭 기자

한·중·일 3국은 이르면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품, 서비스, 투자, 무역 규범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되, 상품 분야는 양자 간 협상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우리의 1위, 3위 교역 대상국인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협상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한·중·일 FTA로 세계 3위 거대 경제공동체 탄생 기대

FTA 체결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한·중·일 FTA가

성사된다면 또 하나의 거대 지역통합 시장이 열리게 된다. 지난해 세 나라의 명목 GDP 합계는 14조3,000억 달러로, 한·중·일 삼국의 시장 규모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의 뒤를 잇는 세계 3위에 해당한다.

한·중·일 FTA는 각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정 산업부분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더욱이 한국, 중국, 일본 간에는 과거사 문제, 영토 분쟁, 중·일 간의 주도권 다툼 등 다양

한 갈등 요인이 존재해 FTA 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어려웠다.

유럽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접국 간 많은 갈등을 겪어 왔지만, 일련의 경제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갈등을 극복해 왔다. 이런 유럽의 경험을 생각해 볼 때 한·중·일 FTA는 동북아 지역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중·일 3국은 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동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역시 동아시아 갈등 해소와 평화 정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중국 성장잠재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한·중 FTA

한·중·일 FTA가 이제 시작 단계라면 한·중 FTA 협상은 이미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한국과 중국은 2012년 5월에 FTA 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한 후 올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자 향후 세계 최대 경제권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하느냐는 현재 세계 주요국에게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FTA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 역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중 FTA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대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에 따른 동반 경기침체 가능성이 다.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이다. 미국 10.1%, EU 10.0%인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도 16.5%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이러한 동반 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한중 간 경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한·중 FTA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중국은 51%의 높은 저축률을 자랑하고, 정부 및 국영기업 주도의 투자는 이 같은 높은 저축률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투자 여력은 매우 높다. 또한 중앙정부의 채무비율도 GDP의 약 25%로 건실한 편이어서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위기국면에 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중 FTA에 대한 두 번째 우려는 한·중 FTA가 한국 산업 구조에 가져올 충격이다. 현재 기술집약적인 연구개발(R&D) 및 제품개발 공정, 부품생산 공정 등은 한국에 있고, 노동집약적인 생산 공정은 중국에 위치해 양국은 수직적 국제분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직적 국제분업 구조는 FTA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결국 한국의 농업 및 노동집약적 저부가치 제조업 부문에서 상당한 구조조정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면 오히려 한·중 FTA는 우리경제가 고부가가치 경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피해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결국 효과적인 산업구조조정 정책과 피해산업 보상 정책을 충분히 마련한다면, 한·중 FTA와 한·중·일 FTA는 우리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

한·중·일 경제공동체(FTA)의 경제 규모(명목 GDP) 비교

자료 : IMF(2011)



FTA 활용 필수 상식 완전 정복

# 애매한 원산지 판정, 특례 규정을 파악하라

FTA 협정 하에서 원산지 판정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에 따르는데, 대개 간단한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원산지 판정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세번변경기준 적용 때는 '미소기준', 부가가치기준 적용 때는 '중간재' '대체가능물품'을 알아둔다면, 원산지 판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클 이민선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

## 01 미소기준이란?

(세번변경기준에서만 사용)

미소기준은 비원산지 재료가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면, 허용 범위 내에서 원산지를 인정해 준다는 원칙이다. 다만, 세번(HS코드)변경기준에서만 적용된다. 세번변경기준은 세번이 변경되면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인데, 미세한 재료에서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고추장을 만들 때 고춧가루, 물엿 등을 이용해 고추장을 만들게 되지만, 소량의 소스류가 들어가게 된다. 고추장 또한 '기타소스류'로 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동일하다. 소스 재료가 국내산이 아닐 경우 세번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완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이 때 사용하는 것이 미소기준으로, 소량 사용된 재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미소기준을 통해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협정에 따라 허용 한도와 품목은 상이하다.

BOM(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 및 원산지 판정

재료명	세번	가격	원산지
A	1701.99	500원	한국
B	2009.19	400원	한국
C	0904.22	400원	미국
D	0904.12	600원	한국
E (기타소스류)	2103.90	100원	중국



$$\frac{100\text{원}}{2,000\text{원}} = 5\%$$

미소기준 적용으로 한국산 인정

4단위 동일 비원산지 재료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 4단위 변경 기준(C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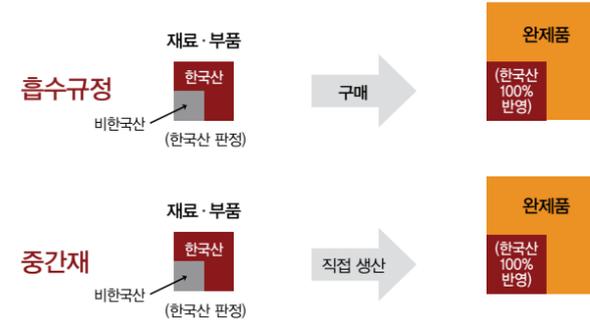
### 협정별 미소 기준

구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미국	EU	페루
가격 기준	일반 품목	10%	10%	10%	10%	10%	10%	10%
	농수산물	1류~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 제외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일부 제외)		1류~14류 적용 제외
중량 기준	섬유	8%	8%	10%	7%	10%	8~30% 일부 가격 기준	10%

CC Change of Chapter(2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Change of Tariff Heading(4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6단위 세번변경기준)

## 02 중간재란?

(부가가치기준에서만 사용)



비원산지 원료가 섞여 있어도 한국산 판정을 받은 재료·부품은 100% 한국산으로 반영하는 흡수규정처럼, 동일한 재료·부품을 완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해도 해당 재료·부품은 100% 한국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간재' 규정이다.

제품 A를 만들기 위해 B라는 재료를 구매했을 경우, B에 외국산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B가 한국산을 인정받았다면, A는 B의 가격 100%를 한국산으로 반영해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이를 흡수규정이라 한다(9월호 31쪽 참고). 그런데, A가 B를 구매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도 B를 100% 한국산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중간재' 규정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중간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완제품과 함께 중간재에 대한 BOM(Bill of Material: 자재 명세서)을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세번변경기준, 미소기준, (일반적인) 부가가치기준 등을 적용해도 국내산 판정을 받지 못할 때 최후적 방법으로 적용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한·인도 CEPA에서는 협정이나 국내 FTA특례법에서 중간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03 대체가능물품이란?

(부가가치기준에서만 사용)



생산자가 이용한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수출되는 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한국산 또는 중국산으로 결정.

김치 제조사 A사는 김치 재료의 국내산 구입이 어렵자 일시적으로 동일한 품목의 중국산 재료를 들여와 김치를 담았다. 제조 공정에서 국내산과 중국산을 구분 없이 사용했을 때, 최종 제품 중 어떤 것은 국내산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국내산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사용된 동일 품목의 재료를 '대체가능물품'이라고 하는데, 국내산과 중국산 비율에 따라 국내산 또는 비국내산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대개 곡물, 과일, 베어링, 타이어 등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해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대체해 사용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대체가능물품을 적용하는 경우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 결정이 가능하다. 재고관리기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는데, 개별법은 한국산과 중국산 재료가 사용된 김치를 일일이 구분해서 한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만을 한국산으로 판정하는 것인데, 위 김치 사례처럼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입선출법은 회계상의 재고관리법에 따라 재료가 먼저 입고된 순서대로 원산지 판정을 받는 방식이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입고된 재료부터 원산지 판정을 받는 방식이다. 평균법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재료 구매 비중이 5대 5라면 최종 제품의 50%를 평균적으로 원산지로 인정받겠다는 방식이다. 다만 위 4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면 당해 회계기간 내에는 동일하게 계속 적용해야 한다. '대체가능물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류로 검증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기록과 일치하도록 재고관리시스템(ERP)이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국회 본회의 통과 터키 측 의회 비준 완료되면 연내 발효 절차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의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터키 측 의회 비준이 완료되면 발효 절차를 밟게 된다. 사진은 지난 3월 한·터키 FTA 협상 완료 직후의 모습.

11월 22일(목요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8월 1일 서명된 한·터키 FTA는 8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뒤 약 3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터키에서는 의회 상임위(외교위)에서 의결된 상태로 현재 본회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터키 측 의회 비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터키와의 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터키 FTA는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발전시키

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협력, 방산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올해 2월 한·터키 정상회담 계기에 출범한 '한·터키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공고히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터키의 △ 내수시장(유럽 인구 2위, 7,370만 명), △ 지속적 경제 성장(2010년 9%, 2011년 7.8%), △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 네트워크(EU와 관세동맹, 요르단·모로코·시리아·튀니지 등 16개국과 FTA 체결)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유럽·중아시아·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지역으로의 진출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터키 FTA 발효를 위한 향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한·터키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부터 한·터키 FTA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 한·터키 FTA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1.5조에 따르면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정에 관한 교섭을 개시해,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개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枝野 幸男) 일본 경제산업대신은 11월 20일(화요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한·중·일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한·중·일 FTA 협상 개시는 2003년 민간 공동연구 개시 이후 산관학 공동연구를 포함, 10년간의 검토 및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2012년 5월 3국 정상회담에서 연내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이후 3국간 사전 협의 및 협상 개시를 위한 우리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새로운 역내 거대 내수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NAFTA, EU에 이은 세계 제 3위의 지역 통합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2011년 명목 GDP 기준)이며, 역내 내수시장 창출은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 교역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18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 FTA 활용 '더 많이, 더 쉽게'

FTA 유관 부처들은 11월 22일(목)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8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 및 'FTA 국내의 설명회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1.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강화

통합무역정보서비스는 FTA 확대 등으로 무역정보에 대한 기업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의 정보역량은 여전히 취약한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들에게 고품질 무역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EU 등 FTA 체결·활용이 본격화되면서, FTA 간 상이한 규정으로 인한 무역관련 정보량이 급증하면서 무역정보가 복잡·산재해 있고, 고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기업의 수출단계 전반을 고려하여 관세율, 원산지 정보, 규제·인증 등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올해 1월 EU, 10월 미국 등 거대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인도, ASEAN 무역 정보 추가 제공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개편하여 제공하고, 2014년까지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2013년 중국, 대만, 홍콩, 2014년 일본).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주요 제공정보

구분	세부항목
세율정보	기본관세, FTA협정세, 감면세, 부가세 등
규제정보	TBT(무역기술장벽), 해외인증, 기술규제, 환경규제 등
지원정보	FTA정보, 해외시장정보, 수출지원책, 무역정보안내지도, 통계 등



### 2. FTA 설명회 개선

정부는 FTA 국내의 설명회 개선을 통해 FTA 활용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해외설명회의 경우 설명회 간 연계 강화, 해외행사 적극 활용, 실무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FTA 해외설명회 추진기관간 대상국, 일정, 프로그램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외공관(외교부)과 사전협조를 긴밀히 하여 해외설명회 추진 시 현지기업들의 수요, 비즈니스 문화·행태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내설명회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 및 기관(지경부, 관세청, KOTRA 등)

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반영한 종합적인 방식의 '기관합동형 FTA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업종·지역 특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 3.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활성화

중소기업의 FTA무역비용 최소화과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산지정보가 편리하게 유통되고, 원산지관리와 관련한 절차가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통합 인프라를 구축·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원산지 증빙 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가능하도록 표준 전자문서 서식 도입, FTA-PASS와 ERP(전자사적자원관리)의 표준 연계모듈 개발·보급, 'e-원산지증명서 도입'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의 원산지 관리시스템과 FTA 포털 등을 'FTA 업무시스템'으로 통합해 FTA-PASS와 연계하고, 원산지관리·원산지정보 유통·ERP 연계·e-원산지증명서가 순환되는 전자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한식의 매력



구절판과 비빔밥의 완성된 색과 형태는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다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일식, 중식의 시대는 가라!

# 이제는 한식이다

우리에게 한식은 그저 생활의 일부일 따름이지만, 외국인들에게 한식은 특별한 체험이자 감동이 된다.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한식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글 장승규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국내 최대규모의 식품박람회인 '코리아푸드엑스포 2011'에서 '주한 외국인 한식요리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한식요리를 들어 보이고 있다.

현재 해외에 있는 한식당의 수는 약 1만여 개가 넘는다. 시간이 갈수록 그 수와 수준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한·미 FTA, 한·EU FTA 발효,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미주와 유럽 등지에 불고 있는 한류 붐 등으로 한국이 중국, 일본을 넘어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맛'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유럽과 뉴욕의 한식당들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대중음식점이 아닌, 맛과 멋이 함께 공존하는 고급레스토랑으로, 트렌디한 핫 플레이스로 사랑받고 있다. 요즘 뉴욕커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식당 '단지(Danji)'와 '정식(Jungsik)'이 그 좋은 예다. 오픈한 지 일 년도 안 돼 전 세계 한식 레스토랑 최초로 미술랭 윈스타를 받은 '단지'와 각종 뉴욕 언론들이 집중 조명된 '정식'은 현대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특별한 한정식 코스 요리들로 한식 레스토랑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곳들이다.

이 외에도 13년째 프랑스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고, 또 미술랭 가이드에 11년 연속 등재된 한식당 '신정', 영국에서 한식을 대중화시킨 최초의 한식당이자 오픈 6개월 만에 레미 마르탱 선정 런던 최고급 음식점 10곳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맛을 인정받은 '코바', 최초의 프랜차이즈 한식당으로 런던 중심가에 문을 연 한식당 '김치', 스페인의 미식가와 셰프들을 반하게 만든 한식당 '서울정' 등은 모두 세계 속에서 한식의 매력을 듬뿍 발산하고 있는 고급 한식 레스토랑들이다.

### 맛, 멋, 건강이 조화된 특별한 한식의 세계

한때 서구인들에게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면 중식과 일식이 전부였다. 중식은 어느 나라에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아시아 음식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특유의 기름진 맛은 건강을 신경 쓰는 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초밥이나 스시 등으로 사랑받은 일식은 건강에는 좋을지 몰라도 날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거부감을 가지는 이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식은 달랐다.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등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을 이룰 뿐 아니라 육식의 비율이 높은 서구 음식이나 중식에 비해 채식과 육식의 비율이 8대 2 정도로 황금비율을 이루고 있어 건강식이라는 이름에 딱 맞는 음식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서구권 식사에 비해 살이 찌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식은 건강한 다이어트식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거기다 여러 해에 걸쳐 발표된 각종 음식 건강 관련 조사에서 우리 청국장, 된장, 김치 등이 건강음식으로 집중 조명됨에 따라 새삼 건강식으로서의 한식에 주목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단순한 한상차림에도 굵고 끓이고 지지고 볶고 삶고 데치고 등의 조리법을 총 동원해 식재료의 영양과 맛을 가장 잘 살려 내놓는 한식에 해외의 내로라하는 유명 셰프들도 감탄을 금치 못한다. 특히 많은 고급 한식레스토랑들이 채택하고 있는 한식 코스 메뉴들은 에피타이저 격인 죽부터 시작해서 밥, 국, 찌개, 전골, 고기, 회, 각종 채소무침들, 부침개를 거쳐 디저트 격인 떡, 차, 음료 등으로 이뤄져있어 프랑스 풀코스 요리 못지않은 풍성함과 만족감을 줄 뿐 아니라 야채와 육류, 생선 요리 등을 모두 한꺼번에 즐기게 해 다양한 맛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절판과 비빔밥의 완성된 색과 형태는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다고 평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다.

### 전통을 살리면서 동시에 세계화에 힘써야

웰빙 시대에 접어든 이후 웰빙 음식으로서 한식에 관심을 가지는 세계인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국내외적인 환경을 봐도 세계 각국과의 적극적인 FTA 체결로 우리의 세계, 식재료의 세계도 점점 더 국가별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그야말로 중식, 일식의 유행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요리로 한식을 인식시키기에 절호의 찬스인 셈이다.

하지만 한식의 세계화에는 여전한 숙제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한식이 가진 바람직한 이미지를 더욱 더 열정적으로 세계에 알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저 아시아의 독특한 음식 중 하나로 부각하는데 그치지 말고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양식, 건강식으로서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특유의 건강함을 살리되 세계 각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레시피를 응용해 새로운 한식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언제까지고 비빔밥과 갈비, 한정식 코스처럼 고정된 메뉴에 한정해서는 새로운 한식 팬들을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1]

### 한식의 세계화, 우리부터 변해야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한식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중요한 약속장소나 연회장의 장소로 선택되는 건 대부분 고급 일식집이나 호텔 양식당이다. 외국에 수출되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식은 그저 가족들끼리 마주앉은 소박한 밥상, 혹은 배고픔을 달래는 한 끼의 국밥으로 표현되는 게 전부다.

일본이 자국의 요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꾸준히 일본음식의 우수성을 소재로 만화,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데 반해 우리는 일상적인 장면에서조차 한식은 평범한 것, 일식은 고급스러운 것이라는 이미지를 반복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아시아와 아랍지역에 우리 한식의 붐이 일었고 많은 한식 팬들이 생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한식을 아끼고 자랑스러워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해 낸다면 분명 한식의 세계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광장의 전광판에 뜬 비빔밥 광고.



## 한류 트렌드, 드라마와 가요를 넘어 오락프로그램까지 진화 제조업 한류의 원동력, **예능 한류**

겨울연가로부터 시작한 한류의 바람은 드라마와 영화를 넘어 K-팝 열풍까지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류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방송오락프로그램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글 이현주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KBS 홍보팀



이란에서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은 무려 9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인기를 끌었던 예전의 한류드라마에 비해 요즘의 한류드라마들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주 등지에서도 매니아층을 형성하는 등 폭넓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일례로 아랍에미리트 국영 지상파 방송사 '두바이 티브이'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대장금' '해신'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의 국내 드라마를 방영해 높은 인기를 거뒀는가 하면, 이란에서는 '대장금'이 무려 9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고, 이라크에서는 올해 대통령 부인이 직접 드라마 '허준'의 주인공인 배우 '전광렬'씨를 초청해 국빈 대접을 할 정도로 한국드라마의 인기가 뜨겁다.

이 같은 세계적인 인기는 인터넷을 사용해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그로인해 한국에서 드라마가 방영된 그 다음날부터 각 나라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리뷰가 쏟아지는가하면, 나라별로 자막을 제작해 해당 드라마 동영상을 시청하는 풍토가 형성되었다.

지난 해 방영된 드라마 '시티헌터'의 경우 중국 유명 동영상 재생사이트에서 총 조회수가 무려 8억 회에 이를 정도였다. 이는 한 회당 약 4,000만

~5,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동영상을 재생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실시간 조회수로 인기가 검증된 작품은 좀 더 빨리,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수출이 가능해지고, 해당 드라마 주연배우의 초청 콘서트 CF 촬영, 드라마 관련 상품 판매 등으로 다양한 부가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 드라마와 가요의 인기가 예능 인기를 이끌어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국제방송영상 견본시(BCWW 2011)에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은 약 3,000만 달러의 수출성적을 기록했다. 드라마 '오작교 형제들' '영광의 재인' '계백' '무사 백동수' 등이 일본, 대만, 필리핀 등으로의 수출됐고, '뮤직뱅크' '인기가요' 등의 가요프로그램도 유럽과 동남아시아 방송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수출에 일조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올해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TV페스티벌 2012(STVF 2012)'에서 한국은 공동관을 운영해 약 1,0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으며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인기를 증명했다. 수출 대상작품은 드라마 '아이두 아이두' '빅' '적도의 남자' '별도 달도 따줄게'를 비롯해 '강심장' '인기가요' 등의 예능프로그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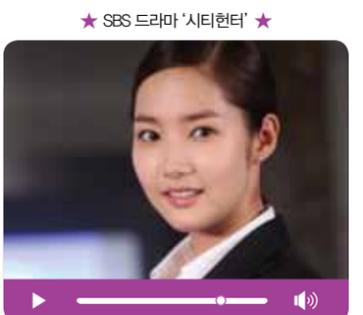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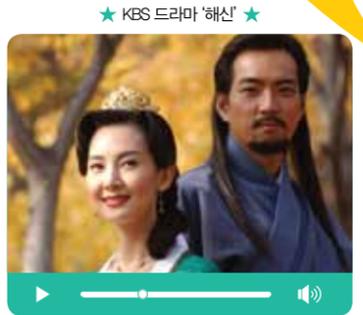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전통적인 강세를 띄었던 드라마에 이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음악프로그램들에 대한 해외 수출계약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K-팝의 인기를 증명하는 예인데, K-팝과 K-팝 스타의 인기가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인기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매회 게스트를 초대하여 도심을 질주하며 추격전을 벌이는 '런닝맨'에 대한 해외 인기는 국내 인기를 능가한다. 이미 중국, 태국에서 진행된 '런닝맨'의 해외촬영 시에는 그야말로 구름 관중이 몰려 국제적 인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대만, 태국,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아시아 9개국에 수출되며 그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다.

### FTA와 한류의 시너지 효과가 인기 근원

이 같이 드라마, 가요프로그램, 예능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송프로그램들이 인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그만큼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은 방송프로그램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2005년, 한국·싱가포르 FTA 체결 시 TV 채널의 재송신에 관한 협의기반 마련 및 한국·싱가포르 방송협력을 FTA에 포함시킨 이후로 싱가포르 내에서 한류 드라마와 가요, 예능프로그램 인기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것은 그 좋은 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한류 드라마, 가요, 예능프로그램의 인기는 그 프로그램에 등장한 패션제품이나 휴대폰, 음식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해 주고,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결국, 한류 관련 콘텐츠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 같은 콘텐츠 수출이 실질적인 상품·서비스 무형수출로 이어지면서 FTA와 한류의 시너지효과가 커져 우리나라는 좀 더 많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FTA로 저렴해진 미국·유럽산 와인 즐기

# ‘확’ 떨어진 가격, 선택폭 넓혔다



지난 11월, 제사를 맞이해 오랜만에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을 찾은 김현진 씨(38세)는 깜짝 놀랐다. 언제나 토속 과실주가 놓여있던 거실 장식장에 전에 없던 와인병들이 즐비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와인을 즐기셨지?’ 궁금해 하는 현진 씨에게 현진 씨의 어머니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얼마 전부터 동네에서 ‘양파 와인’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다.

“양파를 서너 개 썰어 와인에 넣었다 사흘 동안 숙성시켜 먹으면 당뇨를 비롯해서 각종 성인병에 좋다는 이야기였어요. 거기다 다이어트 효과도 높다고 하여 그 동네에서는 젊은이도 나이 든 어른이도 가리지 않고 양파 와인을 만들어 마신다고 하시더군요.”

오랜만에 전화라도 드리려고 하면 “전화요금 아깝다”고 서둘러 끊어버리시던 어머니, 아버지가 비싼 와인까지 구입해 양파 와인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신기했던 현진 씨에게 어머니가 들려준 와인 값은 예상은 훨씬 밑도는 값이라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다.

“요즘은 시골에도 마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마트에서 미국산 C 와인 1병에 5,000원을 주고 구입한다고 하시더군요. 양파 1망 값보다도 더 싼다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데요?”

그마저도 더 싼 와인이 있었는데 아들 녀석과 함께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더 비싼 와인을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거기다 어머니는 양파와인을 만들고 남은 와인으로 갈비를 재어 맛있는 갈비찜까지 만들어 주었다.

“FTA로 인해 와인이 싸졌다. 싸졌다 이야기만 들었는데 직접 시골 부모님께서 와인을 부담없이 접하는 모습을 보니 새삼 와인이 좀 더 쉬운 술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저도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양파 와인을 한 번 담가보려고요.”

### FTA로 인한 가격 대중화가 와인 열풍의 원인

그렇다면 와인 가격은 FTA 체결 이전보다 얼마나 싸졌을까? 정부의 ‘10월 주요 수입 품목 소비자가격 동향(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한 와인 가격의 변화는 전체 수입품목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들 정도로 큰 폭으로 인하됐다. 한·미 FTA, 한·EU FTA의 주요 수입품목 소비자가격 동향을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리점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한 결과, 한·미 FTA 이전인 2012년 3월 초 750ml 한 병에 2만1,000원이었던 미국산 W 와인은 관세율 15%가 즉각 철폐되고 할인행사 등으로 한 병에 1만4,900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즉 한·미 FTA 체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미국산 C 와인.

결을 통해 29.0%나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유럽산 와인도 마찬가지다. 한·EU FTA 발효 전인 2011년 6월에 750ml 한 병에 1만9,800원이었던 유럽산 N 와인은 15%의 관세 인하와 함께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와인과의 경쟁 등으로 12.1%나 가격이 하락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기존 와인제품의 가격 하락만이 아니다. 관세 철폐로 인해 초저가 와인에서 최고급 와인에 이르기까지 가격대는 물론 종류며 산지도 다양한 와인들이 수입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와인 선택의 폭이 전에 비해 몇 배나 더 넓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존에만 해도 와인하면 몇 만 원대에서 몇 십만 원 대의 고가의 와인만 연상하기 일쑤였다. 한 병에 몇 천 원 하는 와인 중에서도 제법 맛있는 와인들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건 최근 몇 년 동안의 일이다.

이렇듯 와인 가격이 대중화됨에 따라 와인을 응용한 다양한 요리법이나 와인 관련 건강법, 미용법들이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도를 100% 원료로 삼는 와인에는 무려 600여 가지의 영양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당분, 비타민, 유기산, 각종 미네랄, 폴리페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수에 좋은 물질들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프랑스에서는 ‘레드와인’을 일러 ‘노인의 우유’라고 부를 정도다.

거기다 와인은 세정작용이나 보습작용도 뛰어나 고대 로마시대부터 미용비법으로도 자주 활용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니 이 겨울, 한·미FTA, 한·EU FTA를 통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 와인으로 맛있는 요리도 즐기고, 건강도 지키고, 겨울바람에 거칠어진 피부에 윤기를 더해줘 보자. 우아한 와인바 대신 일상 생활 속에서 와인의 향기를 듬뿍 만끽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FTA 발효 전후 와인가격 비교

	한·미 FTA 품목	발효 전 (2012. 3)	발효 후 (2012.10)	관세 인하 내용 (할인 폭)
	W와인 (750ml)	2만1,000원	1만4,900원	29.0%
	한·EU FTA 품목	발효 전 (2011. 6)	발효 후 (2012.10)	관세 인하 내용 (할인 폭)
	N와인 (750ml)	1만9,800원	1만7,400원	12.1%



한·EU FTA 발효 후 국내 소비자들의 유럽산 와인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와인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건강 관리법도 등장했다.

### 건강에 좋은 양파 와인 만들기

- 준비 재료** 양파, 레드와인
- 양파를 4등분하여 와인에 잠기게 한다.
  - 3일 정도 상온에서 둔다.
  - 양파를 건져내고 와인을 냉장 보관한다.
  - 소주잔에 담아 하루 3번 정도 마신다.

**효과** 당뇨병과 고혈압 예방에 도움 이 된다. 그 외에 갱년기, 수족냉증, 고혈압에도 좋다. 이명증 개선, 배탈, 주름살 감소, 무릎 통증 해소, 몸무게 감량 등에도 효과가 좋다.



### 레드와인으로 피부에 윤기 더하기

- 준비 재료** 화장솜, 거즈, 레드와인
- 차게 식힌 레드와인을 거즈에 적신 후 짜놓는다.
  - ①을 세안한 얼굴에 놓는다.
  - 화장솜에 레드와인을 적셔 ②의 거즈 위를 두드린다.
  - 거즈가 마르면 떼어낸 후 미지근한 물로 헹군다.

**효과** 레드와인의 AHA 성분이 각질 제거를 돕는다. 또 피부의 혈액 순환을 촉진해 피부의 윤기를 더해준다. 와인의 폴리페놀 성분이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해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 대한민국의 FTA에 가속도가 붙은 한 해

2012년은 대한민국에게 FTA의 가속도가 붙은 한 해였다. 연초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7월에는 EU와의 FTA 발효 1주년을 맞았고, 이어 봄에는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시작됐으며, 가을에는 한·중·일 FTA 협상개시가 선언됐다. 또한 터키와의 FTA가 국회를 통과하는 등 올 한해 많은 FTA 이슈가 쏟아졌다. 그 중 가장 '핫'했던 FTA 이슈는 무엇이였을까?

글 우종국 기자

1

### 한·미 FTA 발효 3월 15일

한·미 FTA는 2007년 6월 서명된 이후 2010년 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마침내 올해 3월 15일 발효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 보니 우려와 기대가 한꺼번에 교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과의 FTA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6개월(4~9월) 동안 대미 수출증가율 2.9%, FTA 활용률 65.0%를 기록하는 등 한·미 FTA는 대미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

### 한·중 FTA 협상 시작 5월 14일

지난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한·중 FTA 협상은 현재 4차 협상까지 이뤄졌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중국 수출 비중(24.2%, 2011년)은 미국(10.1%), EU(10.0%)를 합한 것보다도 크다. 중국의 관세 및 교역 장벽이 제거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 한·EU FTA 발효 1주년 7월 1일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는 발효 전 큰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대EU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발효 1년 사이 자동차 및 부품, 정제유, 합성수지, 기계류 등 FTA 수혜 품목(관세 인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EU로부터의 투자유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불황에도 FTA가 경제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4

###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 11월 20일

한·중·일 통상대표는 지난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한·중·일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NAFTA, EU에 이은 세계 3위의 지역 통합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2011년 명목 GDP 기준)이며, 역내 내수시장 창출은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 교역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 한·터키 FTA 국회 통과 11월 22일

11월 22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터키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7,370만 명)가 많은 나라로, 최근 2년 간 연 7.8~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터키 측 의회 비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터키와의 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



## 세계로 가는 열린 시장의 기회 전북FTA활용지원센터

전 세계적으로 FTA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45개국과 FTA를 발효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FTA 허브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북FTA활용지원센터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FTA 시대에 적극 대응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낌 없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좋은 파트너 FTA활용지원센터가 귀하의 더 큰 도약을 지원합니다.



063-711-2045

전북FTA활용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국 15개 지역에 FTA활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지역별로 다양한 FTA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경기 1688-4684 인천 032-810-2854 대구 053-751-5765 부산 051-990-7082 울산 052-287-3060 광주 062-350-5864 대전 042-480-3042 전남 061-282-9774 강원 033-256-3068 충북 043-229-2721 충남 041-539-4542 경북 054-454-6601 경남 055-210-3043 제주 064-757-2164